

개혁의 길 앞에 선 오늘의 중국출판

한국출판학회 주최 '한·중 출판학술회의' 발표 논문 요지

(사)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는 지난 1월 21일 출현 강당에서 '한·중 출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출판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초청된 중국 출판학자 5인이 발표한 논문들은 중국의 출판계 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발표된 논문 가운데 2편의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40여년 동안 도서판매량 67배 증가

오주명·장청아(吳志明·張清雅) — 중화인민공화국의 출판사는 49년 건국 초기 국영 성격의 27개사뿐이었는데, 95년말 현재 563개사로 늘어났다. 신문 잡지사 역시 40여년 동안 각각 5.6배, 30배나 증가하는 발전을 보였다. 전자출판은 90년대 들어 비교적 늦게 출발했지만 95년말 모두 36개사가 등록했다.

각종 출판물의 경우, 49년 1인당 연평균 0.2권씩 배분되던 책들이 95년에 1인당 평균 5.2권으로 증가할 만큼 큰 진전을 보였다. 전자출판물도 현재까지 출판한 디스크는 1500종, CD-ROM은 120종이 나왔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주요 소수민족들의 출판활동도 활발하다. 26개 민족출판기구·출판사가 20여종의 민족문자로 각종 출판물을 펴내고 있다. 신중국 초기에 소수민족문자 출판량은 621종 661만권에 불과했으나 95년말 현재 3342종 4791만권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책들은 소수민족의 정치 문화와 사상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중국의 인쇄공장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국가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쇄공장은 국가급과 성급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1303개소에서 31만7천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이 인쇄공장에서 총 128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했는데, 인쇄 누적량은 3901만연으로 물량이 크다. 이 가운데 오프셋 인쇄가 70%를 차지한다.

도서유통망은 신화서점 계통을 주체로 한국영서점 설립으로 갖춰지기 시작, 농촌·면·읍 공급판매합작사와 도서판매점이 크게 발전했다. 도서유통망에는 국영과 집단 소유제가 있는데, 집단소유제 성격의 유통망

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개혁 이후 공유제 도서판매점이 발전하고 자영서점·사영서점도 늘어나 현재 전국 88,981곳에서 도서를 공급하고 있다. 도서판매점은 도시(47%)와 농촌(53%)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전국 도서판매량은 약 133억 4천권에 372억 3천만원에 달한다. 건국 초기보다 각각 67배, 7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판매량에서는 교과서류가 압도적으로 많고 문화교육류가 많으며 문학예술류, 소년 아동류, 자연과학 기술류, 그리고 대학교재류와 철학·사회과학 도서류의 순으로 판매되고 있다.

전자출판 유통 역시 10만개소에 이르는 판매점, 입차점, 방영점을 통해 유통되는데 13,000여종의 AV제품이 2억장 가량 판매되고 있다. 대외 수출에서는 중문판 35,000종 500여만부 정도를 주로 싱가포르 일본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캐나다 등지에 보내고 있다.

중국은 출판교육을 중시하는데, 전국에 출판 인쇄 유통 전공의 중등 전문학교, 단과대학과 대학 등 모두 28개소가 있다. 전국 12개 대학에 출판 편집 유통 전공의 4년제 대학과 단과대학 연수반을 더 개설했다. 관련 저작과 서적도 500여종 가까이 출판됐으며 논문도 6700여편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이에 적응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출판체제를 키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기초를 탄탄히 하고 2010년 이후 더욱 성숙시킬 것이다.

시장경제에 맞는 출판체제로 전환

심국방(沈菊芳) —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중국 출판업도 미증유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모순에 직면하기도 했다.

우선 학문별로 엄격히 분류된 지방 성·시 출판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출판사 발전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내리막길에 서게 되고, 일부 출판사는 갈수록 포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영 신화서점이 천하를 통일하던 국면이 차차 분해되기 시작했고, 자영책방의 세찬 시장공세와 국영의 주요한 경로와



지난 1월21일 한국출판학회 주최로 열린 '한·중 출판학술회의'.

의 대등한 경쟁으로 국영 신화서점은 준엄한 도전에 빠지게 되었다. 셋째, 국영 인쇄공장에서만 인쇄하던 도서 신문 잡지의 간행물을 이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쇄공장과 특별허가 인쇄증을 소유한 공장, 신고 승인을 거친 비국영 공장에서도 인쇄할 수 있어 중국의 인쇄업은 출판, 유통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넷째, 1980년대 중기 이후부터 중국의 출판물 증가율이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평균 인쇄부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면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부분 출판사는 아직도 공영이어서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출판된 도서 대부분이 독자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에서 출판되는 약10만종의 도서 중 94%가 독자들과 만나기 어려워 서점의 65%는 연 판매량이 6000종 이하이고, 북경과 상해·남경의 신화서점 판매대에 오르는 도서품종이 1년에 겨우 2,3만종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점은 중국 출판업이 아직도 시장경제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해준다. 이는 출판이 국가적인 특수보호를 받는 산업으로 아직까지 계획경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국영 기업을 주체로 하면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충분히 도입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의 출판체제를 건립하는가가 현재 중국 출판계가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신구체제가 바뀌는 단계에서 문제점들은 개혁의 심화에 따라 점차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치교육 도서, 학술저작, 정신문명 건설상 요구되는 도서에 대해 국가가 특혜 정책을 베풀거나 육성시켜 주어야 하고, 상업적인 대중출판물은 법률수단을 거쳐 규범적인 관리운영의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유통을 돌파구로 출판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제까지는 신화서점이 독점 경영하던 출판 유통체제가 다원화하게 됐다. 중요한 도매상·판매상의 지위에 있던 신화서점은 출판유통 이익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출판과 유통 사이에 새로운 모순이 생성하게 됐다.

최근 몇년 동안 개혁 실천과정에서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과 성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전국 모형 혹은 지역성 대형 도서도매장을 몇개 건설함으로써 전국 모든 성에 도서 집산센터를 만들었다. 도서시장의 네트워크 체계를 발전시켜 도서소매를 주체로 한 연쇄점을 경영하면서 수퍼마켓과 대형 상업센터에서 책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 도서판매 대리제 설립, 도서우편판매 보급, 출판유통그룹의 조직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영 신화서점의 경영 메커니즘을 개혁, 완성시키고 출판사는 서점과의 협업관계를 강화, 도서유통사업의 전면적인 추진과 돌파방향에 만족스런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